

전주시, 'AI 선도도시' 도약 나선다

인공지능 추진위원회 열고 산업 육성 방향·주요 과제 등 논의

전주시가 AI(인공지능)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AI 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시장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 위원인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AI 산업 발전 전략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 위원들은 △전주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향 및 주요 전략 과제 △피지컬AI-기반 추진협의회 구성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전주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향 주요 전략과제로 △피지컬 AI 프로젝트 연계, △전주 신성장산업 고도화 전략, △전주 특화 서비스 AX 전환 전략 △전주 주



전주시는 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AI 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시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피지컬 AI 기술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지컬AI-기반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는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주시 AI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 시는 그동안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시는 지난해 산업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기술검증(PoC) 사업에 참여했으며, AI 신뢰성 실증 공모 대응 등 인공지능 산업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12월 지정된 전북 가상융합산업 거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AI 전문 인재 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피지컬 AI 기술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 인재 양성, 기술 연구 및 실증 지원 등을 통해 지역 AI 산업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AI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전주 인공지능(AI)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피지컬 AI 기술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영원의 하모니-천년을 넘어'

전주시립교향악단, 왕의궁원 프로젝트 연계 공연 12일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주시의 주요 정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공연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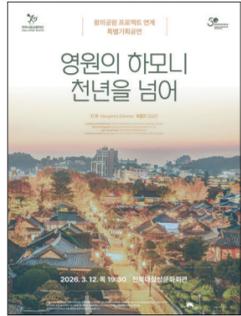
'영원의 하모니-천년을 넘어'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전주의 문화도시 비전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예술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왕의 궁원'은 전주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의미를 담은 개념으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도시의 방향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연은 전주가 축적해 온 시간의 흐름과 음악의 역사를 함께 조망하는 무대로, 관객들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문화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세계 음악계에서 차세대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마르가리타 발라나스(Margarita Balanas)가 지휘를 맡고, 비올리스트 김상진(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 협연자로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 프로그램은 △베토벤 '현악식 서곡, 작품.124'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1919년 버전)' △파가니니 비올라 협주곡(기타 사



중주 작품.15편곡)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마단조, 작품.67, 신세계로부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공연장 입구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왕의궁원 프로젝트' 정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공연 관람과 함께 전주시의 문화정책과 도시 비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R석(1만 원), S석(7000원), A석(5000원)으로, 나투컬처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약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카드 및 다문화카드 소지자 등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권희성 기자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성공 개최 밑그림 그린다

자문위원단 위촉·1차 회의 가져

'책의 도시'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시는 9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회의실에서 그림책·출판·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자문위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BI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그림책협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등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도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기본 방향 지문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차별화 전략 제안 등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들은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도서전을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와 관련 지난해 5만1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뜨거운 성원을 확인한 도서전은 올해 처음으로 관련 국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시는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해외 출판 관계자와의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그림책의 예술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책의 도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외 그림책 원화 전시를 비롯해 △그림책 작가 및 편집자 강연 △그림책 공연 및 체험 △일러스트레이션 아트마켓 △도서전 현장 스케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권희성 기자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그림책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이자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K-콘텐츠"라며 "국비 확보를 통해 축제의 규모가 커진 만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도서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오는 10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상세 일정과 프로그램은 향후 공식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동물원,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 제공

전주시가 전주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제공기로 했다.

전주동물원은 오는 16일부터 11월까지 관람객에게 재미와 흥미를 더하기 위해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국 제1의 생태동물원을 자랑하는 전주동물원은 이번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공감,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자연보전과 환경·사람·동물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물생태해설은 매일 오전과 오후 각 2회씩 총 4회 운영되며, 5세 이상 유아를 비롯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화(063-281-6745)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그러나 동물원은 혹서기와 장마철인



7~8월에는 프로그램이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전주동물원은 해설을 담당할 전문 해설사 7명을 선발하고, 동물 담당 사육사들로부터 개별 동물의 특성과 습성, 관람 에티켓,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해설사들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생생한 설명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동물 관람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시민 맞춤형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시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마음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마음치유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운영 결과 참여자

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입증되고,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특화사업은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경험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취업준비청년 △관계 회복이 절실한 위기부부 및 가족 △감정노동자 등 마음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가에 의한 심층 개인 심리상담(8회기)과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주 1회, 총 4회)이 제공된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번아웃 경험자와

취업준비청년, 위기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한편 마음치유 특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참여 신청은 전주시마음건강이야기 블로그(blog.naver.com/mindhealingcenter) 또는 전화(063-281-8576)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HEAL FROM WATER

아이들의 물놀이 천국

순창강천힐링스파

온 가족이 천혜 자연의 물을 즐긴다.

다양한 건강체험,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 등 이제 새로운 순창을 경험해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

